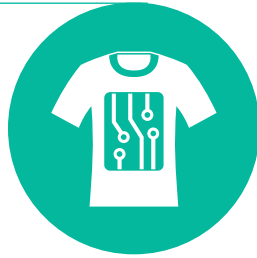


BUSINESS OVERVIEW

32 미래 성장동력 확보

5,259 억 원

R&D 투자액



8.3 %

매출액 대비 R&D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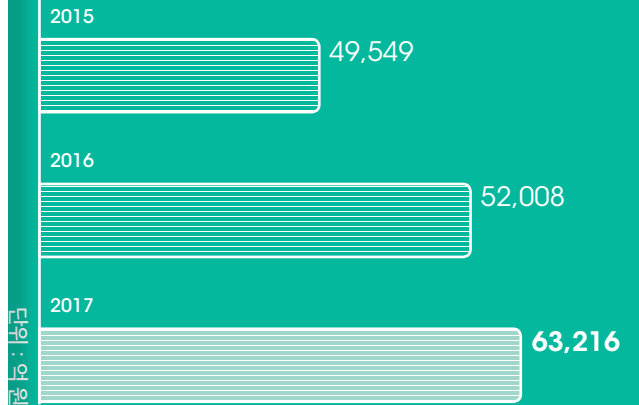


13,304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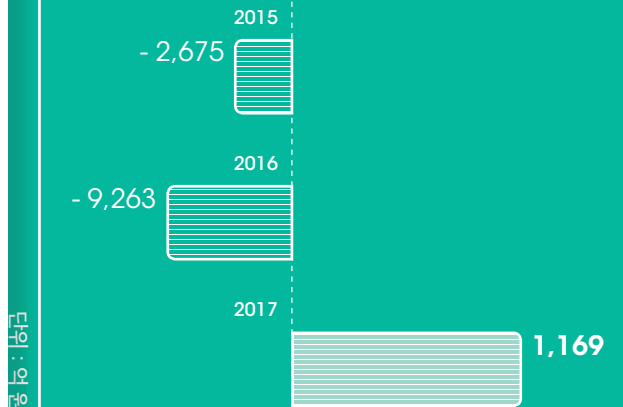
특허 등록 현황



매출액



영업이익(손실)



당기순이익



24.2%

연구개발 인력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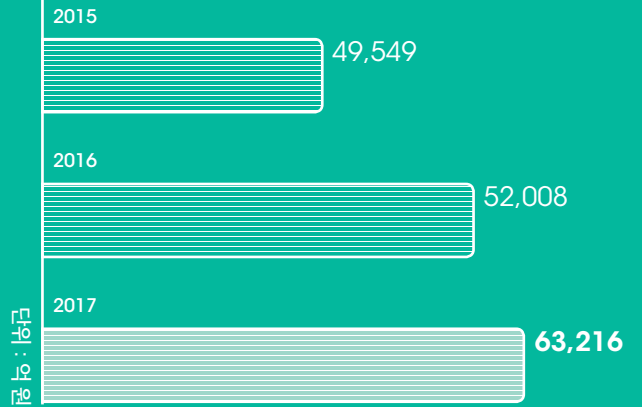


2,21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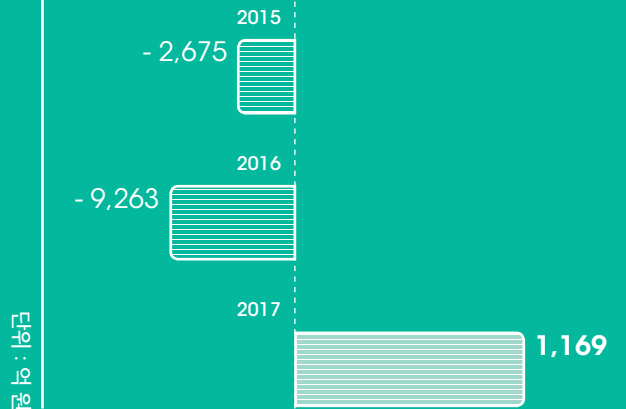
연구개발 인력



매출액



영업이익(손실)



당기순이익



미래기술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로
안정적 경영성과 달성



01

미래 성장동력 확보

What are important iss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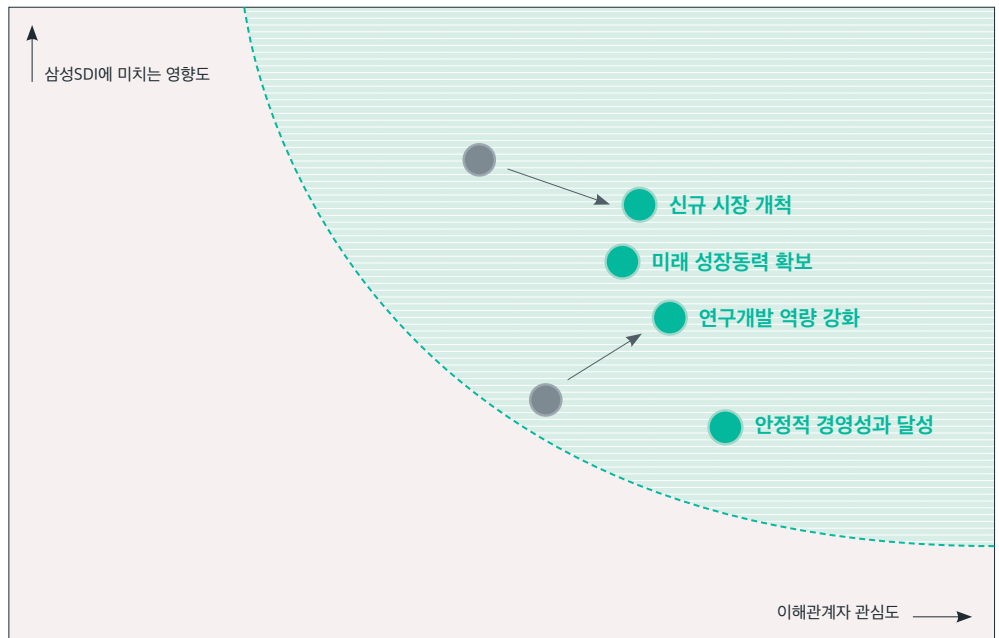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존의
시장에 안주하던 기업들은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진 기업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재무성과를 기반으로 한 차별적
연구개발 역량 확보와 신규 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Our status

삼성SDI는 초일류 소재 및 에너지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한 기술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안정적인 경영성과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 신규 시장 진출 및 내실있는 경영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Our evaluation

2016년 재무·경제 분야내 핵심 이슈로 선정되었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신규 시장 개척’ 외에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 ‘안정적 경영성과 달성’ 이슈가 2017년 중대성 평가 결과 새롭게 핵심 이슈 영역에 반영되었습니다.



Our impact boundary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관련하여 주요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영역으로 ‘임직원’과 ‘협력사’ 측면을 들 수 있습니다. 임직원과 협력사는 경영활동 일선에서 생산성을 확대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Our performance & future plan

기존 사업영역의 신규 수주를 확대함과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연구개발 역량 강화

삼성SDI는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신기술을 확보하고 기술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차전지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차세대 시장을 타겟으로 친환경 초일류 소재 에너지 토탈 솔루션 대표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연구개발 전략

CEO직속의 연구소를 기반으로 소형전지, 중대형전지, 전자재료 개발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소재 R&D 센터를 연구소로 확대 개편하여 미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Open Innovation

외부 전문기관 및 전문가, 대학 등과 산학협력을 확대하여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확보하고, 대학-기업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UNIST와 이차전지 연구 효율성과 집적화를 위한 '이차전지 산학연 연구센터(Battery R&D Center)'를 준공하였습니다. 연구센터는 스마트폰, IT 기기의 소형전지나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의 중대형 전지를 연구하는 공간입니다. '빠르게 충전하고 오래 쓰는 안전한 전지' 개발을 위해 우수한 인력 풀과 분석 장치, 설비 및 제조 라인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소재 연구에 지속적으로매진할 계획입니다.

CASE :: 이차전지 연구 협력 강화

삼성SDI는 학계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이차전지 연구 저변 확대와 우수 인력 확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6년 서울대, 포항공대, 한양대, 울산과학기술원과의 산학협력에 이어 2018년 2월에는 성균관대와의 협약을 체결하여 이차전지 분야 연구 협력의 범위를 확대,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과의 협력은 공동 과제 연구, 이차전지 연구센터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비 지원뿐만 아니라 담당 임원 및 연구원을 1:1로 매칭하여 배정함으로써 긴밀하게 교류하며 체계적인 관계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이차전지 분야 우수인재 양성과 채용 확대 효과를 거두고 정보, 인적, 물적 교류를 지속하여 학계와의 동반성장을 추구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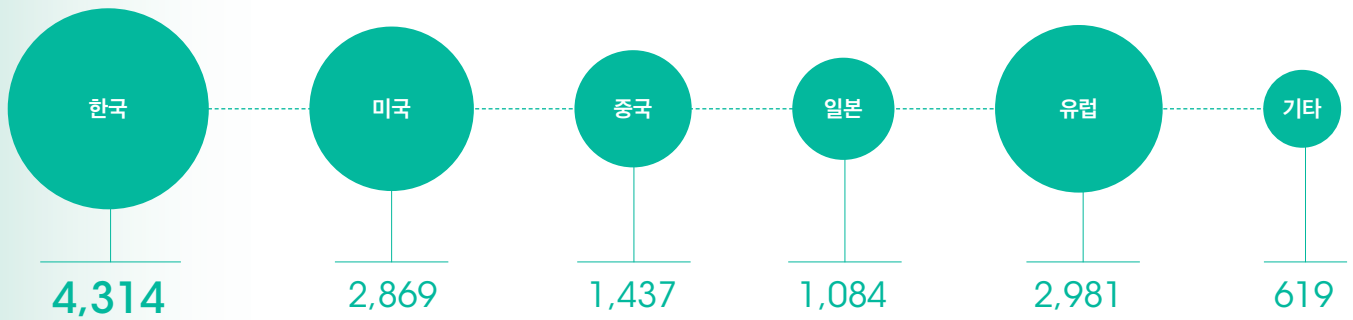
- ① UNIST 이차전지 산학연 연구센터 전경
- ② 삼성SDI-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 협약식



특허 관리

삼성SDI는 SDI연구소를 중심으로 배터리 핵심소재를 개발하고, 그 연구 성과를 특허화하여 이차전지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부 별로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통해 특허경쟁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시장에서는 4,314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해외 시장에서 8,990개의 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특허 출원, 등록 및 유지를 통해 연구 개발 경쟁력 확보와 특허 분쟁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 2017년 특허 등록 성과 (단위: 건)



2017년 연구개발 주요 성과

연구과제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원통형 2차전지의 전극조립체 보호를 위한 간극충전용 Tape 개발	• 전지의 내부 구성물(젤리롤)을 고정 및 보호하여 내진동성을 개선
xEV용 리튬이온전지 원통형 케이스 개발	• 전기자동차용 전지에 특성화된 케이스를 개발 • 안전성 및 신뢰성 개선
OLED용 증착소재 개발	• 고효율 및 장수명 구현이 가능한 증착 소재 개발을 통한 신규 시장 진입
차세대 편광필름 개발	• 신규 디스플레이 제품에 적용 가능한 편광필름 개발로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고휘도 CR 개발	• 기존 제품 대비 휘도 향상된 제품 개발하여 기존 MS 수성
반도체용 Slurry 개발	• 신규 제품군 진입을 통한 시장 확대
반도체용 EMC 개발	• Void 특성이 우수한 EMC 개발로 시장 확대
고효율 전극 Paste 개발	• 고효율 전극 Paste 개발을 통한 매출 증대 기반 확보

1

삼성SDI는 전기차의 주행거리 확대를 위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동일 사이즈의 기존 제품 대비 배터리 용량이 25% 향상된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양산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배터리 에너지 밀도 향상을 위해 소재 및 구조 혁신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에너지밀도
자동차 배터리
개발ESS
Compact Platform
개발

ESS(에너지 저장장치)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19" 플랫폼을 17"로 축소하고 Tray 없이 모듈을 직접 조립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한 Compact Platform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료비 절감 및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되어 ESS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매출 급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2

3

21700 배터리는 지름 21mm, 높이 70mm로 기존 제품(18650, 지름 18mm, 높이 65mm) 대비 용량을 50% 향상시킨 것으로 적은 수의 배터리로 원하는 용량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21700 배터리는 용량은 물론 수명 및 출력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사이즈로 원가 경쟁력도 갖추고 있어서 향후 전동공구, 전기자전거 등 원형 배터리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형
21700 배터리
개발

4

2016년 스마트폰 안전성 이슈를 계기로 연구개발, 제조기술, 품질검증 등 분야에 걸쳐 안전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집중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제품 대비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제품을 개발, 외부 기관의 검증 결과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상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제품을 본격 공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물질을 적용하여 발화나 폭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전고체전지 연구 등 제품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안전성 강화
기술 개발저전압·장수명
OLED 발광소재
개발

삼성SDI는 지난 2014년 OLED발광소재인 인광 그린호스트(G-Host)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효율 및 구동전압이 우수한 제품으로 친환경/저전력 스마트폰 구현에 기여해 왔습니다. 2017년에는 기존 제품보다 수명이 길고 구동 전압은 더욱 낮아진 개선 제품 개발에 성공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주요 스마트폰 업체의 차기 제품에 채택되는 등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5

6

OLED패널은 높은 표면 반사 특성으로 인하여 기존 LCD용 제품과는 다른 새로운 구조의 편광필름이 요구됩니다. 이에 당사는 박막위상차를 활용한 OLED용 편광필름 개발에 착수하여 2017년 기술 확보에 성공, 고객사에 공급을 개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번 기술 개발로 신규 공정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OLED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편광필름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OLED용
편광필름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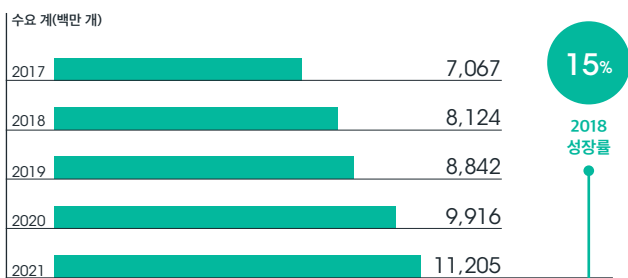


소형 배터리

사업 전략

스마트폰, 웨러블 기기 등의 다양한 IT 기기시장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친환경, 고효율 트렌드 확대로 고성능을 요구하는 신규 소형 배터리 시장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선도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형배터리 수요 전망



글로벌 시장 전망

2018년 소형 이차전지 시장 수요는 전년 대비 약 15% 성장해 총 81억 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동공구, 청소기 등의 전력 어플리케이션 내 리튬이온 이차전지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요가 전년 대비 26% 이상 고성장하면서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원형 배터리를 채용한 전기자동차 시장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시장 성장을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IT 부분에서는 AI, 사물 인터넷 기술의 본격 상용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웨어러블, VR/AR 기기 등 새로운 기기의 확산이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SDI는 전력, IT 전 영역에 걸쳐 이차전지 혁신 기술을 선도함으로써 시장 리더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BUSINESS CASE

유로바이크 2017 전시회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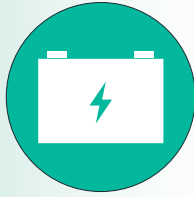
삼성SDI는 독일 프리드리히스하펜(Friedrichshafen)에서 열린 '유로바이크 2017 전시회'에 참가해 다양한 전기자전거용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삼성SDI는 이번 전시회에서 자전거에 내장하거나 외부에 장착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6종의 배터리 팩을 포함해 현재 글로벌 자전거 업체에 공급 중인 12종의 배터리 팩과 다양한 스펙의 셀들을 함께 전시했습니다. 또한 배터리 팩에 블루투스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가 자전거를 타면서 스마트폰을 통해 배터리 잔량, 주행가능거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기술도 소개했습니다.

빈틈을 줄인 프리폼 배터리로 25% 용량 증가

삼성SDI가 개발한 250mAh 용량의 비정형 배터리가 삼성전자 기어S2에 탑재되며 시장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비정형 배터리는 공간활용도를 높여 배터리 용량을 약 25% 증가시키고 원형 디자인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향후 배터리 디자인은 비정형 배터리와 같이 제품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전망입니다.

2018년 사업 계획

삼성SDI는 2017년 흑자전환에 성공한데 이어 2018년에도 변함없는 안전성을 기반으로 매출 및 손익의 지속 성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폴리머 제품군은 글로벌 주요 고객사를 중심으로 고안전성, 고에너지 밀도 기반 제품의 판매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원형 제품군은 시장 내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해 나감과 동시에 차별화된 제품 개발과 출시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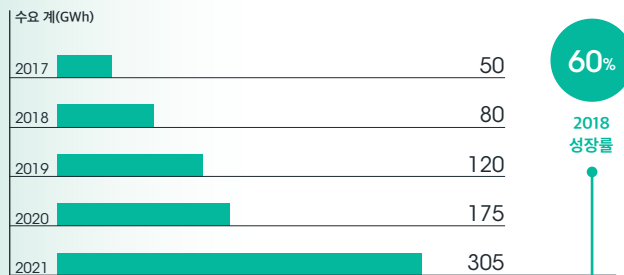


자동차 배터리

사업 전략

전세계 자동차 제조사들은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및 각종 대기오염 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방식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SDI는 모바일기기용 배터리 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저공해 차량을 위한 고효율, 고에너지 밀도의 배터리 개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수요 전망



글로벌 시장 전망

2017년에는 중국, 유럽, 미주 등 주요 시장에서의 전기차(xEV) 판매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25% 이상 성장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2018년부터는 주행거리가 확대된 신모델이 출시될 예정이며, 2020년부터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본격적인 장거리 주행 및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모델들이 시장에 출시되어 시장을 강력하게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에 이르면 연간 전기차 판매량이 1천만대를 상회하여 전체 자동차 시장의 약 10%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 유럽 지역에서는 강력한 환경 규제로 디젤 차량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내연기관차량의 판매 및 운행 중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도 2019년부터 전기/플러그인하이브리드 방식의 의무 할당제를 도입을 예고하고 있어 중장기 전기차 시장은 시장의 전망을 크게 상회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됩니다.

BUSINESS CASE

삼성SDI, “전기차 미래, 오늘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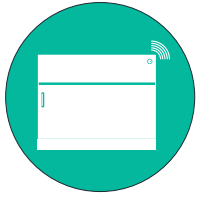
미국 디트로이트 코보(COBO) 센터에서 열린 ‘2018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전기차 대중화를 선도할 고용량, 급속충전 혁신 소재와 첨단 제품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20분 급속충전 기술을 접목해 최대 600km 까지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용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 셀을 중심으로 전기/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세대별 배터리 셀 라인업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최근 세계적인 과학 채널인 네이처지에 논문으로 게재한 ‘그래핀 볼(용량을 45% 높일 수 있고 충전 속도도 5배 빠름)’, ‘전고체 전지(소재와 용량 및 안전성을 동시에 개선)’를 소개하며 혁신 기술에 대한 삼성SDI의 의지를 널리 알렸습니다.

헝가리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준공

헝가리 부다페스트 인근 괴드시에 약 33만m² 규모로 약 5만대 분량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준공 하였습니다. 헝가리 공장은 2018년 2분기부터 본격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며, 해당 공장의 준공으로 인해 물류비 절감은 물론 유럽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훨씬 더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럽은 강력한 환경규제로 전기차 분야의 거대한 잠재 시장이며, 헝가리 공장 준공으로 삼성SDI는 울산, 중국 시안과 함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3각 생산 체제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사업 계획

삼성SDI는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는 유럽 및 신흥시장에서 에너지 밀도, 급속충전 등의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출시를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시장의 환경적인 요구에 부응하고자 전기차의 본격적인 개발을 앞다투어 진행하고 있으며, 삼성SDI는 이와같은 자동차 업체들에게 최적의 자동차 배터리 솔루션을 제공하면서도 단순 부품 판매가 아닌 전기차 분야의 전후방 산업을 함께 이끌어 나가는 파트너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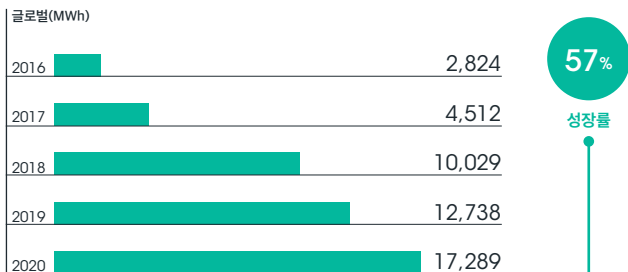


ESS

사업 전략

삼성SDI는 ESS 배터리를 주력상품으로 국내시장 및 일본, 미주,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흥시장으로의 시장 진출 확대에 역점을 두는 한편, 일반 주택용 배터리부터 대형 전력용, 상업용, UPS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의 활용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튬이온 배터리 ESS 시장 규모



글로벌 시장 전망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가들은 ESS 관련 정부 보조금을 기반으로 대규모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리튬이온 이차전지 대량 생산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ESS 설치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연계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적으로 ESS 설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SS 수요는 세계에서 가장 큰 ESS 시장인 미국은 물론,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과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서는 ESS 촉진요금제, 신재생발전 설비에 ESS 연계시 REC 가중치 정책 및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으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ESS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ESS 시장 역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USINESS CASE

해발 5,000m 티벳 고산지대에 삼성SDI 배터리 추가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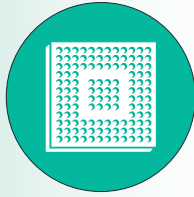
2016년 중국시장 1위의 PCS(Power Conditioning System) 업체인 선그로우사와 티벳고원에 14MWh 규모의 ESS와 13MW급 태양광 발전소를 연계한 친환경 자급자족 전력체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티벳의 상후지역은 ESS가 설치된 지역 중 세계에서 고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평균 영하 5°C에서 최대 영하 40°C까지 내려가는 극한의 기후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삼성SDI는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당사 배터리의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017년에는 선그로우사와 동일한 규모로 PV 및 ESS를 추가 설치하여 당사의 배터리가 까다로운 기후조건에도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삼성SDI, 세계 최대 산업용 ESS에 배터리 공급

현대중공업은 울산 본사에 삼성SDI의 배터리를 활용하여 51.5MWh의 산업용 ESS 센터를 구축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구축된 산업시설용 ESS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며, 이는 15,000여명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전력을 저장할 수 있어 정부가 에너지신산업 정책으로 추진 중인 ESS 보급 확산사업의 올해 목표치의 약 5분의 1에 달하는 용량입니다. 삼성SDI는 고유의 시뮬레이션 기술을 통해 고객들에게 정확한 ESS 수명 예측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들은 이를 통해 ESS 설치 환경이나 비용 등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가동 중인 ESS는 현대 중공업의 전력 피크 시간대의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연간 1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사업 계획

전세계적으로 탈원전 및 탈석탄 트렌드가 이어짐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이에 따른 전력용 ESS 솔루션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 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ESS 수요 충족을 위한 전략적 시장 강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전세계 가정용 태양광 자가소비 증가함에 따라 가정용 ESS 솔루션의 공급 채널 확대 및 시장 점유율 지속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력요금 상승과 경제성 개선으로 점차 성장하는 북미 및 유럽 시장에서 ESS 솔루션 사업을 확장하는 한편, 국내 시장에서의 지속적 판매 확대를 위한 혁신적 기술의 제품 출시와 업계 최대 실적이라는 성과를 통해 얻은 신뢰성을 통해 ESS 시장의 리더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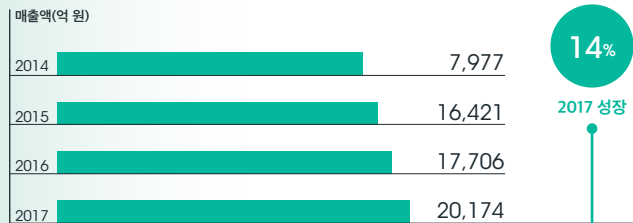


전자재료

사업 전략

삼성SDI 전자재료사업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차세대 에너지에 활용되는 소재를 개발하고 판매합니다. 제품의 Life Cycle이 짧고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사업의 특성상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고도의 R&D능력을 갖추는 한편, 차별화된 기술 확보와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재료 매출 실적



글로벌 시장 전망

지난 몇 년간 TV 및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사업부의 주력 시장인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수요가 정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 글로벌 경제는 금융 위기 이후 최대의 성장이 예상되며 이에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호조가 이어지는 반도체 시장에서는 수익성 확보를 위한 미세공정 기술 개발 및 3차원 구조의 확대로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OLED 채용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수요가 꾸준히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LCD 시장은 기술의 보편화로 인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차별화된 기술 확보와 원가절감 그리고 고객 다변화 대응 노력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USINESS CASE

전자재료 사업, 끊임없는 자기혁신

1994년 반도체용 공정소재인 EMC 개발을 시작으로 전자재료사업에 첫 발을 내디뎠으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도전과 자기혁신을 통한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새로운 분야에 진출해 왔습니다. 이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및 태양전지용 소재에 이르기까지 앞선 기술과 전문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신 성장동력, OLED에서 길을 찾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높은 리딩 기업들은 이미 주력제품에 OLED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들도 앞다투어 관련 분야에 투자를 늘리는 등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변화하는 고객 니즈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한발 앞선 선행개발을 통해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가 2014년 개발한 OLED용 소재인 인광그린호스트(G-Host)는 꾸준히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에 안주하지 않고 2017년 기존 제품보다 수명이 길고 구동 전압은 더 낮아진 개선 제품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세계 유수의 스마트폰 업체의 차기 제품에 채택되는 성과를 창출해 내었습니다. 2016년에는 중국 무석공장 가동으로 생산능력을 끌어올린 편광필름 사업을 통해 기존 LCD용 제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구조의 OLED용 편광필름 개발에 성공하여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2018년 사업 계획

2018년에는 고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제품을 선도적으로 출시하여 글로벌 시장 리더십을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시에 미래 기술 트렌드를 주도할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고객이 원하는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는 동종업체 대비 우수한 성능의 제품을 선행 공급하여 기존 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 가파른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 소재 시장에서는 고효율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제품의 개발 및 공급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차세대 IT 기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소재 및 반도체 미래소재를 선행 개발하여 성장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적시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